

오이타현의 대표적인 민예품 히메다루마

다케타시를 방문하면 상점과 음식점, 심지어 분고타케타역 내에서도 상냥한 미소를 짓는 흥백의 다루마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 ‘히메다루마’는 다케타 지역의 독특한 물건으로 도시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행운을 부르는 물건으로 여겨지는 다루마는 일본 전국에 있지만, 그 대부분이 남성인 것에 반해 히메다루마는 여성입니다. 그 역사는 과거 에도시대(1603-1867)에 전통적으로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집으로 던져 넣는 물건이었습니다.

히메다루마에는 둥글고 무거운 받침대가 붙어 있어 쓰러뜨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키아가리(오뚝이)’ 인형이라 불렀고, ‘오키아가리(오뚝이)’라고 외치면서 집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히메다루마는 실패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신념을 구현한 존재이자 가정의 화목과 사업의 번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히메다루마의 전통은 1900년대 전반에 사라졌다가 1950년대에 다케타시의 고토 쓰네토 씨가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고토 씨는 이 ‘쓰러져도 일어나는’ 다루마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부흥을 상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히메다루마는 다케타시에 거주하는 고토 가문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의 화목과 사업 번창을 기원하며 선물을 합니다.